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스마트 교실' 운영

순천시, 27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2020년 검정고시 준비 시작 ... 주 4회 1:1 멘토링 지원

순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4일(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검정고시 대비 스마트교실'개강식을 27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가졌다.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했다"며 "지원센터에 와서 도움을 받게 되어 다행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올 해 꼭 합격하고 싶다"고 각오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역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자립 등 다각적으로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교실을 통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총 94명의 청소년들이 스마트교실에 참여해 82명(88%)이 합격의 기쁨을 얻었고, 이중 수능시험과 대학입학준비를 한 9명은 부산외대, 원광대, 백석대, 전주대, 순천대에 각각 합격해 2020학년도 새내기 대학생이 된다.

순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순천시에서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 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검정고시, 문화체험 등 학업복귀 지원과 인턴십, 직업체험 등 사회진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과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061-749-4235-7로 문의하면 된다.

정수현 기자

'순천시민대학' 강사 공개모집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 방문·우편 접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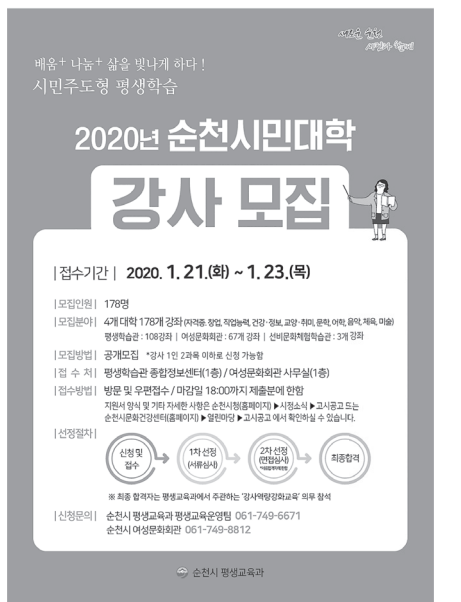
순천시는 오는 1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중심 '2020 순천시민대학'을 이끌 유능하고 의욕 있는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생활기능, △인문교양, △문화예술(선비문화 체험학습관 포함), △여성문화 4개 대학, 178개 강좌로 강사 1인이 2과목까지 중복지원 할 수 있다.

'2020 순천시민대학'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당선 강좌 10개를 포함한 '순천형 특화강좌'와 전문성을 강화한 자격증 취득 과정 등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 강좌 개설로 운영과정이 대폭 개편되므로, 지원 희망자는 지원분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의 전공자이거나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합격자는 1차 서류 적격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지원희망자는 순천시청 또는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강사응모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평생학습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여성문화대학 강사는 여성문화회관으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사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평생교육과(061-749-6671) 또는 여성문화회관(061-749-8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숙오 기자

이길훈 순천교육청 교육장, 연향중 운동부 동계 훈련장 방문 격려

메달 위해 땀 흘리는 초·중학생 배드민턴 꿈나무들 격려

순천교육지원청 이길훈 교육장은 부임 이후 관내 학교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내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며 잘하고 있다는 지역 교육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여론이 자자하다.

방문하여 메달을 향한 꿈나무들의 겨울 도전이야기와 예쁜 볼스식과 함께 아이 키움 최적임을 함께하는 순천교육의 또 다른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진로탐색·실정', 「학교 운동시설 돌아보기」 「시설 보수」 「공부하는 운동선수상 정립」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격려했다.

체계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운동선수가 지녀야 할 존중과 배려의 덕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탐색·설계할 뿐만 아니라, 한계까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공부하는 운동선수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동계훈련에 참석한 한 학생은 "운동을 하면서 집중력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땀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

하다"며, 노력의 대가가 진로탐색의 출발점이 되어 기쁨이 열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순천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매서운 겨울바람은 인내의 섬이지만 아이들의 노력이 소통과 협력의 싹을 틔워 성취감으로 승화하는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남과 다른 내 안의 영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문석 기자



순천시청소년수련관

202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강

순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9일(목) 202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강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청소년과 학부모, 지원협의회 위원, 전문 강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강사·학부모·지원협의회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4~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주 5일 동안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학습과 뉴스포츠, 연극교실, 미디어, 미술활동, 음악활동, 드론 등 8개 분야의 전문체험활동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야외현장체험, 문화예술 공연,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등 토요체험활동과 청소년캠프·부모교육·청소년 특강·발표회 등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급식·상담·생활일정 관리·귀가지원 등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정수현 기자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제17회 한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청소년 성장과 발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해룡면)이 지난 14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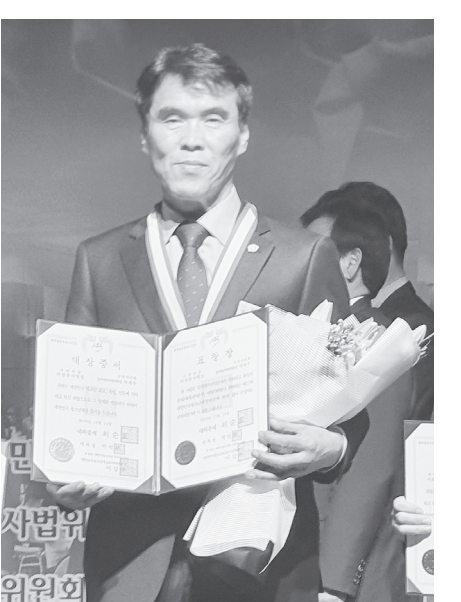
대한민국청소년대상은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유래가 깊은 행사로서 한국청소년신문사 주최하고 국회,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후원하고 있으며,

대상 수상 선정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그리고 선도 등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기여한 인물 및 단체로 구성된다.

박계수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했으며, 시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박계수 의원은 "청소년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청소년 신문사는 1991년 창



박계수 의원.

간이 됐으며, 청소년문제를 심층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인교육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관계자의 제언을 수록해 청소년 교양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전효성 기자

본지는 인터넷신문 '아침신문·순천신문·여수타임즈'와 자회사입니다. 순천일보 순천신문 여수타임즈 줌(zum)에서 검색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제일대학교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위탁교육생 23명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는 2020년 1월 15일 오전 10시30분 소내 대강당에서 안

효승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문창현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등 내·외빈과 졸업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제2회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순천교도소와 순천제일대학교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고등 직업교육을 통한 수형자의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순천교도소 내에 전문학사과정 위탁교육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졸업생 23명이 '전문학사 학위'와 한식·양식·제과·제빵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출소 후 취업·창업하는데 실질

적인 도움을 제공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정봉수 순천교도소 소장은 졸업식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에 정진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순천교도소는 앞으로도 수형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 가족들을 초청해 졸업을 축하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그 동안 못다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보냈다.

이문석 기자

순천대, 이창용 미술사 초청 특강 큰 호응

약학대 죽호홀에서 '장 프랑수아 밀레'의 삶과 그림 공유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지난 14일(화) 15시에 약학대학 죽호홀에서 지역민을 초대해 진행하는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 미술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삭 줍는 여인들' 등 밀레의 작품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친근한 화가로 알려진 밀레의 그림세계를 지역민들과 함께 향유했다.

김지연 기자



치매안심센터 '파트너 양성교육' 실시

순천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순천시 남부, 용당, 동부 종합 복지관 근무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란 뜻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복지관 종사자들은 치매에 대한 기본상식과 치매예방을 위한 활동과 방법, 치매파트너의 역할, 치매환자와 가족이 겪는 변화와 대처법 등을 배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정수현 기자

교육에 참여한 복지관 종사자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잡아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교육소감을 전했다.

순천시는 "치매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질병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치매파트너의 활동에 대한 영상코너가 마련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치매안심센터(061-749-8888),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하면 된다.